

10 칼빈과 초대교부들 : 개혁주의 교부학의 가능성

한성진 교수 / 합동신학대학교, 교회사

1. 서론 : 교부학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

1) 교부학 또는 교부신학

흔히 교부와 관련된 학문 영역을 ‘교부학’(敎父學)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말로 교부학이라고 번역되는 학문이 *Patrologia*인지 *Theologia patristica*인지 학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성수는 드롭너의 정의에 따라 두 가지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지만, 전자를 교부론(敎父論), 후자를 교부학으로 번역한다.¹⁾ 그러나 대전 가톨릭대학 교부학 교수인 배승록은 하성수와는 반대로, 전자를 교부학, 후자를 교부신학(敎父神學)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²⁾ 그에 의하면 교부학이란 초기 교회 저술가들의 생애와 작품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으로, 복사본들과 다소 원 텍스트에 가까운 텍스트들을 재조사, 재식별, 재구성하는 학문이다. 한편 교

1. H. R. 드롭너, 하성수 역, 「교부학」(외관 : 분도출판사, 2003), 6쪽.
2. 배승록, 「교부와 교회」(대전 : 대전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5), 22-23쪽.

부신학은 17세기부터 '교부들의 신학'이란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성서신학, 스콜라 신학, 사변신학 등과 비교하여 '교부들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부학(Patrologia)은 늘 교의역사(historia dogmatis) 및 실증신학(theologia positiva)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교부신학(theologia patristica) 혹은 역사신학인 실증신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³⁾

가톨릭 학자들이 번역상의 차이가 있지만, 두 개념을 구분하는 데 반해, 개신교 학자들은 두 학문 사이의 구분을 큰 차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김광채는 patrologia와 patristica 모두를 '교부학'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한다.⁴⁾ 이러한 사용을 바탕으로, 그는 교부학의 과제를 "교부들의 (1) 생애, (2) 저작, (3) 사상, 그리고 (4) 교부들이 후세에 미친 영향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본다.⁵⁾ 이러한 용어의 혼동에 대해 조병하는 "증인으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위하여 불러내어졌던 고대 그리스도교 시대의 모든 저술가들을 일치로서 파악하고, 그리고 역사학 방법론의 기본 법칙들에 따라 다루는 하나의 신학적인 학문이다."라는 스투이버의 교부학 정의를 소개한다.⁶⁾ 이와 동시에 드롭너가 전문용어로 Patrologie와 Patristik을 용어 정의로 구분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김광채 의견에 찬성하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오늘날의 교부학은 고대 그리스도교 역사에 남겨진 교부들의 문헌을 바탕으로 역사적, 교리적, 사상적으로 조명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정의를 선보인다.⁷⁾

'교부학'을 둘러싼 용어혼란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 나

3. 배승록, 22쪽 각주 15.

4. 김광채, 「교부열전」(서울: 정은문화사, 2002), 23쪽.

5. 위의 책, 28쪽.

6. Berthhold Altaner & Alfred Stuiber, *Patrologie: Leben, Schriften und Lehre der Kirchenväter*(Freiburg: Herder, 1980), S. 1.

7. 조병하, "현대 교부학 연구의 동향", 「역사신학 논총」 제6집 (서울: 이레서원, 2003), 13쪽.

라에서 거의 최초의 전문적인 교부학 입문서라 할 수 있는 슈미트의 교부학을 번역한 정기환은 *Patristik*을 '교부 문헌학'이라는 용어로 번역했는데,⁸⁾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부 문헌학'은 *Patrology*와 더욱 연관성이 깊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혼동은 초창기 번역 작업을 할 때, 교부학 용어와 관련된 사전적 도움이 부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⁹⁾

한편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 사이에는 '교부학'과 관련된 이해와 접근법에 있어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가톨릭 학자들은 '교부학'을 주로 문헌학적이며 교리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개신교 학자들은 역사학적 또는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러한 개념상의 인식 차이는 각 교파가 속한 현실과 관련이 깊다. 가톨릭 대학에는 역사신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교부학'이라는 과목이 존재하며, 교부학만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 그러나 개신교 신학교에서는 '교부학'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이 없기 때문에, 역사신학이나 조직신학에서 관련 부분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는 역사신학과 구별성을 강조하게 되고, 개신교에서는 연관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우리 나라 개신교 교부학의 현실

우리 나라에서 교부학의 연구 작업은 거의 대부분 가톨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 면에서의 차이는 상당히 두드러진다. 가톨릭의 한국교부학연구회는 1980년대 말부터 분도출판사를 통해 '교부문헌총

8. P. B. 슈미트, 정기환 역, 「교부학 개론」(서울: 컨콜디아사, 1987), 11쪽.

9. 라틴어 용어의 영어인 *Patrology*와 *Patristics*와 관련된 혼동은 차지하고, 여기에 '기독교 문헌학'과 '교부 문헌사'가 끼어들면, 용어의 혼동은 극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혼동은 영어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번역의 문제임과 동시에 아직 우리 기독교 학계에 '교부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최소한의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서'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생명의 말씀사나 기타 개신교의 교부 저작들이 대부분 39권짜리 영문판 *NPNF(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의 번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라틴어/그리스어 대역에 충실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쌓여 가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교부 및 초대교회 연구에 있어 내용과 질, 그리고 양 모두에 있어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다. 어찌면 역사신학이나 조직신학에서 초대교회사와 관련된 문헌들을 찾을 때 가톨릭 서적들을 더 많이 의존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3) 연구의 양적, 질적인 차이의 원인

교부학에 대한 개신교의 불균형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적으로 개신교에는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나 중세 교회에 대한 연구는 보다 학문적 비중이 낮은 보조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정기환은 역사서문을 통하여 "개신교단에서는 초대 및 중세 교회사보다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나머지 교부학에 대하여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¹⁰⁾ 토로한다.

종교개혁사에 대한 관심과 초대 및 중세 교회사에 대한 소홀함의 이면에는 개신교회 안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의견의 일치가 있다. 이 일치는 "종교개혁사=우리의 역사, 초대 및 중세 교회사=가톨릭의 역사"라는 심리적 기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심리는 학자들보다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더욱 증폭되어 나타난다. 종교개혁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이러한 일반적 오해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오해한 것이다. 종교개혁의 목표 중의 하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회복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중세교회사=가톨릭의 역사라고 말할 수

10. P. B. 슈미트, 정기환 역, 「교부학 개론」, 역사서문.

있을런지도 모르지만,¹¹⁾ 분명 초대교회는 신·구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이다. 흔히 성도들은 초대 교부들을 연구한다고 하면, "왜 가톨릭의 인물들을 연구하지요?"라고 순진하게 질문하고 만다. 초대교회의 풍부한 역사가 우리 개신교회의 자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성도들에게 알릴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극히 적은 영향이기는 하지만(적지만 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모토가 오늘날 교부학 연구의 실제적 장애로 등장하는 현실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극명하게 높였다. 종교개혁의 결과 우리는 각자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지니게 되었다. 이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으니,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신약학, 구약학'과 '성경 관련 언어'의 연구이다.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원천으로 돌아가자. 즉,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닌가!" 따라서 신학교의 어학 교육은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신학교 커리큘럼에 상당히 잠재되어 있다. 우리 나라 개신교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헬라어, 히브리어와 같은 수준으로 가르치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라틴어 습득의 경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부학으로 깊게 들어가는 결정적인 도구의 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성경'이라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굳이 '교부'라는 또다른 보조 권위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교회사적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문에는 한편으로 '교부'나 '교부학'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가톨릭적 영향력이 확대되는가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깃들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내면에는 왜 '전통'에 대한 '성경' 우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명히 확립되었는데, 다시금 '교부 전통'에 대

11. 암흑 같은 중세에도 간간히 하나님의 진리를 밝힌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점에 서, 필자는 중세 교회사=가톨릭의 역사라는 단순화에도 명백히 반대한다.

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가 하는 의문이 숨어 있다. 위의 두 가지가 주로 성도들이나 신학교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인 반면, 세 번째 질문은 개혁주의적 교부학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4) '성경'과 '전통' 또는 '오직 성경'과 '교부학'

가톨릭은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성경'과 '전통'을 교회의 두 기둥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는 이 양자를 동일한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바라보는 가톨릭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승록은 가톨릭의 인식을 잘 보여 준다. "교회는 두 보화를 갖고 있으니,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가 그것이며, 기록되지 않은 형태로 교회의 초창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과 교회의 실천적 관행을 지적하는 성전(聖傳)이 있다. 성서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으며 읽을 수 있는 유형한 것이라면, 성전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무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무형한 성전의 현존을 알려주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교부'들이다."¹²⁾ 이에 따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제 양성 안에서의 교부학 교육에 관한 훈령'을¹³⁾ 통해 '미래 사제들을 위한 교부학 교육'을 강조할 정도다. 교부학이야말로 성경과는 다른 교회의 보이지 않는 전통의 역사를 보여 주는 실례라는 것이다. 즉, 현재 가톨릭교회가 세워진 초기 건축의 토대로서 교부학을 인식하며 시들지 않는 교회 경험의 원천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부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대한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전통'과 '성경'을 동일한 권위의 원천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개신교는 이 양자에 있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

이 점에 있어 모든 개신교는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맥그라쓰는 종교개혁 당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모토의 해석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이 있었다고 본다. 그는 이를 '전통 0'과 '전통 1'로 구분한다.¹⁴⁾

전통 0 : 급진 종교개혁

전통 1 : 제도적 종교개혁

그에 의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오직 성경' 원칙을 실시한 그룹은 '전통 0'이다. 이들은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교회적 시행이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유아 세례'를 거부했으며,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성경적 기초를 가진다는 이유로 부정되었다. 또한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나 카스파르 슈벤크펠트(Caspar Schwenkfeld) 등은 모든 개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성경 외의 일체의 도움을 거절했다. 따라서 1530년 세바스천 프랑크(Sebastian Frank)는 "바보 같은 암브로스, 어거스틴, 제롬, 그레고리, 이들은 심지어 주님조차 몰랐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라고 보내진 이들도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사도들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선언할 정도였다.¹⁵⁾ 급진개혁 세력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교부들의 증언'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전통 1에 속한 루터나 칼빈 같은 제도를 통하여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개혁자들은 '성경'과 '전통'에 있어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전통 0의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었다. 종교개혁 과정에서

12. 배승록, 12-13쪽.

13. *Instruction sur l'étude des Pères de l'Église dans la formation sacerdotale*(Rome : 1989).

14. A.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Oxford : Blackwell, 1993), p. 144. 맥그라쓰는 전통 0과 전통 1 외에 가톨릭의 입장을 반영하는 전통 2로 '두 원천 이론'을 정식화한 1547년 트레نت 회의의 결정을 들고 있다.

15. 위의 책, 146쪽.

이들은 사실상 교회나 전통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이는 가톨릭에 대항하여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가치를 높이 들었다. 이는 '전통'이나 '교회의 결정'이 '성경'을 식별한다는 가톨릭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어떠한 교회 회의나 권위 있는 교부의 전승 또는 교회의 오래된 관습이 성경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빛이 교회나 교회 회의의 결정의 올바름을 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가 오랫동안 시행해 오던 관습이라도 성경적 권위에 좌우되었다. 이에 따라 가톨릭의 칠성례 중에 세례와 성찬만이 인정되었다. 이런 과정에 따라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극명하게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이 결코 기독교 문헌, 특히 교부에 대한 사용과 연구를 막은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교부들의 입장이나 전통적인 관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정신과 부합한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활용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강력한 '기준'이 있었으며, 르네상스를 통한 강력한 성경비평의 방법론적 도구가 있었으므로,¹⁶⁾ 무엇이 성경에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성경'과 '전통'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개념이나, 한 쪽을 택하면 한 쪽은 완전히 버려야만 되는 경합하는 권위의 두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권위'가 있으며, '전통' 또는 '교부'는 이 권위를 증거하는 고대로부터의 역사적인 '자료'였다. 다시 말하면, 방대한 교부자료는 종교개혁이 결국은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운동임을 보여 주는 신뢰할 만한 증거였다.

5) 소논문의 목적

이 소논문의 주요한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개혁주의적 교부학의

16. 성경의 권위와 교부 자료와의 관련성에 있어서의 르네상스적 방법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는 즐고, 한성진, "칼빈의 교부자료 사용연구", 「역사신학 논총」 제8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을 참조하십시오.

실천적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는 것이다. 교부학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현실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역사적, 신학적 문제들을 다소 긴 서론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첫 번째의 본론에서는 가톨릭 교부학의 기본 개념과 함의를 비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개신교의 교부학이 정립되어야 필요성을 도출시킬 것이다. 두 번째 본론에서는 개혁주의적 교부학의 가능성을 칼빈의 교부사용이라는 종교개혁 시대의 실천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칼빈의 교부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용을 통하여 오늘날의 개혁주의적 교부학에 주는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두 번째 본론은 그 자체만으로 교부학이 가톨릭만의 것이 아니라, 개신교 종교개혁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부학의 중요성을 간단히 논한 다음, 개혁주의적 교부학의 가능성을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본론

1) 가톨릭 교부학의 몇 가지 개념

(1) 교부가 되는 조건

'교부'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흔히 고대성(Antiquitas), 교리의 정통성(Doctrina orthodoxa), 모범된 생활(Sanctitas vitae), 교회의 인준(Approbatio ecclesiastica) 등의 네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운다. 고대성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주후 8세기까지의 인물을 '교부'라고 부른다. 또한 교부들은 그 가르침과 사상이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의 테두리 안에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생존 시 성인으로서 공경 받을 정도로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교회에서 교부로 인정하거나 미사 경본이나 성무일도에 이름이 거론되거나, 혹은 저서의 일부가 독서로 채택되어 있어야 한다.¹⁷⁾ 실제로 교부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한 승인은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거의 유사하다.¹⁸⁾ 다만 네 번째 교회의 인준에 있어서 미사 경본이나 성무일도 등은 가톨릭의 양식이므로, 개신교회에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 교부학의 대상

교부학의 대상에는 교부들의 생애와 저서, 그리고 학설을 주로 연구한다.¹⁹⁾ 교부들의 생활이 주목되는 이유는 생애 연구를 통하여 교부들의 개성과 인품만이 아니라 작품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저서가 그 교부의 진짜 작품인가 위작인가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헌학적 비평 도구들이 필요하다.²⁰⁾ 학설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학설 또는 이론이 종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독창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교부들의 '특징'과 학설들의 '취약점'을 고찰해야 한다.

(3) 교부의 권위 문제

개신교와 가톨릭의 교부 이해에 있어 가장 충돌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교부의 권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일부 가톨릭 신학자들은 교부들의 권위에 대한 법칙을 규정하기도 한다. 첫째, 자연 지식의 대상에 있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 또는 전체 교회 교부들의 진술은 자신들이 근거하는 증명 논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권위를 가진다. 둘째, 신앙과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두 교부의 증언은 아직 어떤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능성을 지시한다. 셋째, 이와 반대로 신앙과

17. 배승록, 20쪽.

18. 김광채, 16쪽.

19. 배승록, 21-22쪽.

20. 저작권에 따라 순수 작품, 비순수, 또는 삽입된 작품, 의심적은 작품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며, 내용에 따라 위작, 삽입, 훼손, 완전한 작품, 단편, 분실된 작품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형식에 따라서는 자필, 원본, 필사본, 손으로 쓴 사본, 인쇄된 사본, 초필 사본 등으로 나누이기도 한다.

윤리의 문제에 있어 전체 교부들의 의견의 일치는, 이 교부들이 언제나 무오한 교회의 이론과 신앙을 증언하고 일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²¹⁾

위의 법칙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수적인 의미의 강조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신앙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 수적인 일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위도 증가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아울러 '성경'에 대한 확정도 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처럼, 교부들의 의견의 일치가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도 결국은 '무오한 교회의 이론과 신앙'을 증언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신앙과 윤리에 있어 교회의 이론과 신앙은 언제나 무오한 것인가?

결국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결정이다.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권위이자 역사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 이유는 교부들 증언에 자연적 권위 또는 역사적인 권위가 첨부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룩한 교부들의 권위는 그 권위의 근거가 교회 교사직에 대한 초자연적인 승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이 진리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일치되는 증언이 완전한 믿음의 가치를 가진다는 '자연 논리의 명제'에도 있는 것이다."²²⁾ 초자연적이고, 역사적인 교회의 결정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계시라거나 초자연적인 기원을 지닌 것이 아니라 '자연 논리의 명제'에 따른 것으로 제시된다. 어디에도 '성경'이 설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슈미트에 의하면 가톨릭교회는 제롬을 '성서해석의 최고의 선생'(in exponendis sacris Scripturis Doctorem maximum)으로 지정해 말하고 있는데,²³⁾ 칼빈은 제롬의 성서 해석을 가장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권위의 문제를 종교개

21. P. B. 슈미트, 「교부학 개론」, 23-24쪽.

22. 위의 책, 25쪽.

23. 위의 책, 28쪽.

혁자, 특히 칼빈은 어떻게 다루었을까?

2) 칼빈과 초대교부들

(1) 기독교 강요 초판의 서문

칼빈의 교부 사용은 그 초창기로부터 목적의식을 지니고 사용되었다. 이 사실은 「기독교 강요」 초판의 ‘프랑수아 왕에게 보내는 서문’(1535년)에서부터 두드러진다. 이 서문의 목적은 두드러지게 변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²⁴⁾ 칼빈은 복음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새롭고’, ‘최근에 태어난 것’이라는 혐의를 거부한다. 본질적으로 칼빈은 두 가지 반증을 제시한다. 첫째, 로마의 교리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둘째, 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사실상 ‘교회의 보다 나은 시대인 교대저자’들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²⁵⁾ 달리 말하자면, 이 반증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제시한다. 첫째, 교부들은 로마의 이단을 지지하지 않으며, 로마의 주장은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둘째,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교리가 보다 건전했던 초대교회의 교사들의 것, 특히 어거스틴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²⁶⁾

칼빈은 가톨릭에 대한 반증을 펼치면서 어거스틴의 이름을 등장시킨다. “그러므로 당시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에게 한 것과 똑같은 답변을 우리도 역시 반대자에게 하고자 합니다.”²⁷⁾ 칼빈은 교부들을 인용하면서 교부들이 개혁교리를 반대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결정적인 선언을 한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가 교부들, 즉 초대교회의 보다 순수하던

시대의 저술가들을 반대한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부들이 자신들의 불경건을 지지하였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만일 논쟁이 교부들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가장 겸손히 말한다 해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quorum autoritate si dirimendum certamen esset, melior victoriae pars ad nos inclinaret*).”²⁸⁾ 칼빈은 가톨릭이 교부들을 존경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역시 두 분의 교부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분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수도사는 흥한이나 산적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다른 교부는 “수도사는 비록 연구와 명상과 기도에 몰두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생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나태하고 배가 똥똥한 수도사들을 사창굴과 흥동가에 두어 남의 재산으로 포식하게 하였으니, 결국은 이 한계를 범하고야 만 것입니다.²⁹⁾

그러나 칼빈이 교부들을 등장시킨 이유는 교부 자신들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칼빈은 교부라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 교부들의 저작에는 박인박증하며 탁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범하게 되는 과오가 저들에게도 있습니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교부들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서문은 가톨릭의 교부 사용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 특징은 칼빈의 평생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된다. 첫째, 칼빈은 개혁주의의 교리 대부분이 교부들의 입장과 같거나 유사하

24. A. N. S. Lane, *John Calvin: Student of the Church Fathers*(Edinburgh: T&T Clark, 1999), p. 33.

25. J. van Oort, ‘John Calvin and the Church Fathers’ in Backus (ed.), *Reception of the Church Fathers in the west*(Leiden, etc.: E. J. Brill, 1997), p. 665.

26. A. N. S. Lane, 34.

27. 이종성의 공역, 「기독교 강요」(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52쪽.

28. 위의 책, 53-54쪽.

29. 위의 책, 56쪽.

30. 위의 책, 54쪽.

다고 확신하고 있다.³¹⁾ 둘째, 가톨릭교회는 교회의 인정을 받은 교부 전승의 경우 거의 '무오'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데 반해 칼빈은 공인된 저작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오류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셋째, 칼빈은 교부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이것이 교부 자신의 권위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가톨릭의 '교부' 증거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칼빈은 교부들이 고대성을 지니며, 덕망을 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정통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는 '교회의 결정'이 아닌 '성경'임을 분명히 주장한다. "애매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성경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따르지 않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주장한 교부가 있습니다."³²⁾ 따라서 칼빈이 교부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충실한 경우에 국한되었다.

칼빈이 평생 가장 사랑하고 선호한 교부는 어거스틴이었다. 초대 교부들에 대한 칼빈의 개인적인 평가에 있어 어거스틴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칼빈은 고대의 모든 권위들에 대한 대표자로 어거스틴을 기꺼이 내세운다(CO 2, 441). 어거스틴과 관련하여서는 심지어 부정적인 언급 속에서도 존경의 증거가 나타난다(CO 13, 374). 비록 칼빈이 크리소스톰을 '가장 위대한 주석가', 어거스틴을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칭찬하지만, 곧 이어 성경의 경론과 교리의 해석에 있어 어거스틴이 크리소스톰보다 우위에 있다고 덧붙인다(CO 9, 833-836). 종교개혁 당시의 핵심 이슈였던 '칭의', '예정론' 및 '주의 성찬' 교리에 있어 어거스틴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된다.³³⁾ 또한 비록 영향력은 다르

31. 참조, 위의 책, 54쪽. "사실 그것이 나의 현재의 목적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의 대부분을 교부들의 찬성을 얻어 입증한다 해도 조금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32. 위의 책, 58쪽.

33. 줄고, 한성진, "칼빈의 어거스틴 사용연구," 「한국교회의 신학인식과 실천」(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6), 618쪽.

지만 은총, 중생, 원죄, 자유 의지, 교회론, 성경의 권위 등의 내용에서도 어거스틴은 칼빈의 저작에 분명한 발자국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어거스틴의 견해를 기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칼빈은 그가 다른 교부들, 공의회들을 판단하고 비평한 그대로, 유일한 척도인 성경에 대한 충실성을 기준으로 어거스틴의 견해들도 판단하고 비평했다. 성경 구문에 대한 어거스틴의 알레고리한 방법이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는 철학적 사색의 정교함에 대해서는 결코 일말의 인정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어거스틴을 '교회의 아버지'(the father of the church)로 인정한 것은, 칼빈의 눈에 처음 5세기까지의 교회는 성경에 충실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어거스틴은 이 성경의 교리를 가장 잘 파악한 자격 있는 대표자였기 때문이었다.

2) 로잔 회의

칼빈의 교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어느 정도였을까? 초창기로부터 칼빈의 교부 이해와 인식은 아주 독보적인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가 1536년 10월 1일에서 8일까지 열린 로잔 회의(1536)다. 이 회의에는 가톨릭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참여했으며, 칼빈은 파렐(Farel) 및 비레(Viret)를 동행한 보조자였다. 그는 보조자로 참관하였으므로, 토론에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었다. 실제로 칼빈은 다섯째 날까지 침묵을 지켰다.³⁴⁾ 그러나 가톨릭 신학자인 장 미마(Jean Mimard)가 개신교도들은 고대의 성스러운 박사들을 욕되게 한다고 공격했을 때 행동에 나서게 된다. 칼빈은 자신이 그 자리에 참석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초대 교부들을 연구한 사람임을 입증한다. 이 짧은 대답을 통하여 칼빈은 향후 그가 교부들의 사용에서 드러낼 주요한 특징들의 맹아를 드러낸다.³⁵⁾ 칼빈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교부들은 그들의 대의에

34. J. van Oort, 672.

반대되고 적대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정죄하고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혐의에 분개하여 반박한다.

만약 우리가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그토록이나 경멸하고, 그들을 바보처럼 취급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상황에 적절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저작을 읽고, 그들의 가르침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가?³⁵⁾

칼빈은 자신의 말대로 이를 평생의 실천으로 증명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는 교부들의 권위는 로마 가톨릭이 생각하는 권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장엄함을 훼손시키는 정도로까지 그들의 권위를 높여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적합하고도 완전한 충성이 바쳐져야 합니다.”³⁷⁾ 그러나 칼빈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는 사실이 실제에 있어 로마 가톨릭 교도들보다 교부들을 덜 존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³⁸⁾

맥그라쓰는 ‘로잔 비망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인용문의 출처 위치에 대한 칼빈의 부정확성을 근거로 칼빈의 교부에 대한 지식이 수준 이하였다고 비판한다.³⁹⁾ “어거스틴의 23번째 편지의 끝부분과 마니교도인 아디만투스에 대한 반박의 중간 부분에서 창세기 9장의 본문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아도레트의 구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요한복음 서문의 여덟 번째던가 아홉 번째 줄에서……”⁴⁰⁾ 그러나 당시

35. A. N. S. Lane, 26.

36. CO 9 : 877. A. N. S. Lane 26쪽에서 재인용.

37. CO 9 : 877. A. N. S. Lane 27쪽에서 재인용.

38. A. N. S. Lane, 27.

39. A.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 A Study in Shaping of Western Culture*(Oxford : Blackwell, 1990), p. 97.

40. CO 9 : 880.

의 정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칼빈은 어떠한 참고서적도 손에 들지 않고, 한 도시의 운명이 결정될 공개적인 토론 장소에서 기억력에만 의존하여 교부들에 대한 지식을 보여 주어야만 했다. 설령 오늘날의 학문적 기준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16세기의 변증적 기준으로 살펴볼 때, 칼빈의 지식은 철저한 것이었다. 21세기의 학문적 척도로 과거의 사실을 평가하는 것은 ‘아나크로니즘’의 오류이다. 더욱이 그 현장에서 칼빈의 주장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칼빈의 논증이 끝나자마자 프란시스코 수사였던 장 탕디(Jean Tandy)는 그 자리에 일어서 자신이 복음으로 개종했음을 선언했다.⁴¹⁾ 로잔 회의는 칼빈의 교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 결코 교부에 대한 존경을 감소시키는 일이 아니며, 아울러 교부를 사용한다는 것이 역으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실천적인 예이다.

3) 칼빈의 교부 인용문 사용

다음의 표는 칼빈이 사용한 초대교부의 인용문 숫자를 칼빈의 저작 시기를 다섯으로 나누어 조사한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어거스틴까지만으로 한정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칼빈이 교부를 얼마나 빈번히 사용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41. A. N. S. Lane 28.

이름 시기	초기 저작시기	제네바 시기	스투트가르트	1550년 이전	1550년 이후	인용문수
1. 요세푸스		1	1	5	65	72
2. 위(爲)-클레멘트				3	4	7
3. 이그나티우스				1	6	7
4. 위(爲)-아그나티우스					5	5
5. 순교자 저스틴					10	10
6. 이레니우스	3	1	2	15	63	84
7. 테롤리안	9	2	1	23	87	122
8. 히폴리투스					2	2
9. 노바티안		2	3	4	5	14
10. 키프리안	7	8	30	29	47	121
11. 위(爲)-키프리안	1	1	2		2	6
12. 락탄티우스	1	2	2	6	2	13
13. 클레멘스* ⁴²⁾					2	2
14. 오리겐	4	6	4	24	14	52
15. 디오니시우스*					1	1
16. 유세비우스	6	2	4	24	14	52
17. 소크라테스		1	6	2	4	13
18. 소조메누스		1		4	1	6
19. 테오도레			6	7	7	20
20. 카시오도루스	7	4	9	5	9	34
21. 아타나시우스	1			5	24	30
22. 시릴*	3	5	3	16	25	52
23. 바실	2	1	4	6	9	22
24. 그레고리** ⁴³⁾	1	1	2	1	10	15
25. 에피파니우스	1			1	11	13
26. 아모니우스			1			1
27. 크리소스톰	17	31	16	125	70	259
28. 위(爲)-크리소스톰	2	8	1	2	12	25
29. 헤시키우스				1		1
30. 네스토리우스				1	11	12
31. 레오 1세			24	10	19	53
32. 크리시푸스				1		1
33. 힐러리	4	7		20	23	54
34. 알브로스	10	7	23	49	44	133
35. 위(爲)-알브로스		8	1		9	18
36. 루피누스				2		2
37. 제롬	11	11	19	89	202	332
38. 어거스틴	50	137	186	457	878	1708
39. 위(爲)-어거스틴	4	7	1	7	9	28
총 수	144	254	351	945	1706	3402

표 1. 칼빈이 사용한 초대교회 인물들의 인용문수⁴⁴⁾

42. *는 알렉산드리아를 의미한다.

사용 인용문의 수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종교개혁의 사상과 실천이 깊어지면 질수록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교부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 인용문의 사용수가 이 시기까지 타 교부들에 대한 인용수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이 표에서 주의할 점은 사용 빈도수가 꼭 그 교부에 대한 의존도나 칼빈 저작에서 차지하는 그 교부의 중요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칼빈이 가장 자주 인용한 교부는 어거스틴으로 1,708개의 인용문(전체의 51%)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용된 사람이 제롬으로 332개(10%) 인용되었다. 세 번째가 크리소스톰으로 259개(8%) 인용되었다. 아무도 제롬이 크리소스톰보다 많이 인용되었다고, 칼빈이 제롬을 더 의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칼빈이 제롬과 크리소스톰을 주로 사용한 이유는 성경 주석과 관련해서인데, 제롬 인용문의 대다수는 제롬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반면 크리소스톰에 대해서는 그의 주석이 '자연스럽고 문자의 의미대로'(CO 9, 835)이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을 '가장 위대한 주석가'로 인정한다.

칼빈의 교부 인용의 수치는 종교개혁의 'sola Scriptura' 원칙이 성경의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교부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했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비록 칼빈이 동방 교부에 관한 한 탁월한 '교부 학자'는 아니었지만,⁴⁶⁾ 평생 교부들을 공

43.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44. 위 표는 네덜란드 학자인 R. J. Mooi의 *Het Kert-en dogmahistorisch element in de werken van Johannes Calvijn*(Wageningen, Netherlands : H Veenman & zonen, 1965)의 부록표 57의 일부를 추출 번역하고 시기별 총수를 더하여 만들어졌다. 무이는 칼빈 저작인 59권의 *Calvin Opera Omnia*에서 인용문을 일일이 찾았다.

45. 칼빈의 교부 사용에 있어 어거스틴의 독특성을 위해서는 줄고, 한성진, "칼빈의 어거스틴 사용연구," 『한국교회의 신학인식과 실천』(수원 :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6년)을 참조하시오.

46. 안토니 레인은 칼빈을 '16세기의 가장 위대한 교부 학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부하고, 즐겨 사용한 교부 애호가였다.

4) 시대별 교부 사용과 평가

(1) 3세기까지의 교부 사용과 평가

칼빈이 인용한 처음 3세기까지의 고대 교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부는 저스틴 마티이다.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이 10개가 인용되었는데, 주로 삼위일체 및 성찬 교리와 관련해서이다.⁴⁷⁾ 칼빈은 반삼위일체주의자인 블란드라타와 논쟁할 때, 저스틴의 신학적 정식화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음을 지적한다.⁴⁸⁾ 이 시기에 칼빈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교부는 이레니우스였다. 인용의 목적은 피기우스, 세르베투스, 젤틸, 베스트팔, 헤슈시우스 등의 대적들에 대한 변증으로 사용되었다.⁴⁹⁾ 칼빈은 이레니우스의 *Adversus haereses*를 연구했음을 보여 준다.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을 위해 사용되었다.

피기우스와 세르베투스와의 논쟁에서 특히 사용된 교부는 터툴리안이다. 부자유 의지에 대한 논의에서 칼빈은 터툴리안의 *Adversus Marcionem*이 완전히 자신의 편이라고 주장한다. 젤틸에 대한 반박에서 칼빈은 “터툴리안은 전적으로 우리 편이다.”(CO 9, 410)라는⁵⁰⁾ 말을 사용하는데, 교부 개개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어거스틴을 제외하고

평가하는데, 이레나 바쿠스는 “칼빈은 동방교부에 관한 한 결코 교부 학자가 아니었지만, 예리한 독서가이자 사용자였다.”고 보다 정확히 평가한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서방 교부의 사용에 비해 동방 교부의 사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칼빈의 교부 사용은 변증적 사용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칼빈이 상대한 것은 동방교회가 아니라 당시의 부패한 가톨릭교회였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교부들로부터 얼마나 이탈해 있는지를 직접 교부들의 증거를 통하여 보여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방교부에 관한 한 그다지 커다란 관심과 사용빈도를 보이지 않는다.

47. Mooi, 194.

48. van Oort, 685.

49. Mooi, 195.

50. *Tertullianus totus noster est.*

는 터툴리안이 유일하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주석을 통해 박해시 배교자들에 대한 터툴리안의 엄격한 태도에 대해서 칼빈은 명백한 비판을 한다.⁵¹⁾

키프리안은 1543년 이후부터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 부분에서 주로 언급된다. 교권은 개인이 지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직자들이 가지는 것이라는 견해가 소개된다. 성직자나 감독의 임직은 회중의 참석 속에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함이 인용된다. 박해시 배교자에 대한 키프리안의 온건한 태도가 칭찬되며, 이 교부가 모든 교인에게 분간 시행을 지지했음을 보여 준다.⁵²⁾

키프리안에 대한 높은 평가가 그의 동방의 동시대인인 오리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엄격한 비판이 자주 눈에 띈다. 특히 자유의지의 논의에서 어거스틴으로 오리겐을 반박한다. 구전 전승을 *deliria*로 평가한 오리겐의 견해는 아주 심한 질책을 받는다(CO 9, 278). 칼빈의 생각에 오리겐은 성경의 단순성과 명료성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너무 사색적이었기 때문이다.⁵³⁾

(2) 4, 5세기의 교부 사용과 평가

4, 5세기 교부 중에서 힐러리가 정기적으로 인용된다. 힐러리의 삼위일체 교리가 일반적인 승인을 받으며, 힐러리의 *De Trinitate*를 철저히 연구한 흔적을 보여 준다. 성경 주석에 있어서의 과도함과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이다. 그러나 성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실재적 임재와 관련된 논의에서 칼빈은 힐러리를 우군으로 인식한다.⁵⁴⁾

암브로스의 저작에서 칼빈은 인간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

51. Mooi, 201.

52. 참조. A. Zillenbiller, *Die Einheit der katholischen Kirche. Calvins Cyprianrezeption in seinen ekklesiologischen Schriften*(Mainz : 1993).

53. van Oort, 687-688.

54. 위의 책, 688쪽.

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비록 *praescientia*에 대한 암브로스의 견해에는 반대하지만, 교회 재산의 사용과 세속 권력에 대한 교회의 방어, 기독교론은 크게 찬양받는다. 로마의 수위권에 대한 반박으로 암브로스의 편지가 자주 인용된다. 데오도시우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초대교회는 성찬시 분병과 분잔을 사용한 증거로 제시된다.⁵⁵⁾

제롬은 어거스틴에 이어 332회나 사용된다. 그러나 자유 의지, 고해, 결혼에 관한 견해는 비판을 받았고, 주의 성찬은 불명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롬의 *hypostasis* 용어는 더욱 혼동스럽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교회 건물의 과도한 치장에 대한 제롬의 비판과 단식을 중요시하지 않은 점은 크게 칭찬을 받는다.⁵⁶⁾ 거의 200개 이상의 인용문은 주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고고학적, 지리학적 데이터는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지만, 제롬의 주석 방법론은 너무 알레고리하다고 비평을 받는다.

어거스틴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단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어거스틴을 독보적으로 인정한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이다. 칼빈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었으며, 어거스틴의 논증은 결코 그의 근거가 아니었지만, 성경을 지지하는 권위로 작용했다. 실제로 칼빈은 그 누구보다 어거스틴의 논증이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한편 가톨릭에서 교황이라는 점 때문에 큰 권위를 인정받는 레오 1세의 경우 로마 교구의 수장권을 주장한 점이 칼빈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사용되지만, 주로 서방 신학과의 비교를 위해 사용된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정통 교리를 수호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칭찬을 받는다.

칼빈의 교부 사용에서 현저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칼빈은 교부들의

55. 위의 책, 688-689쪽.

56. 위의 책, 689쪽.

주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다. 비록 교부의 명망성이나 저작의 탁월성 등을 존경하고, 인정했지만, 그 때문에 무조건적인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한 교부의 어떤 입장이 맞거나 틀리다고 그 교부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나 절대적인 배척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흔히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는 현재 신학의 렌즈로 과거를 단순화시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칼빈은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그 교부가 속한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나 한계를 너그럽게 인정하여, 그 교부의 한계와 장점을 적절하게 잘 평가했다. 이 점은 개혁주의적 교부학의 평가 기준을 제안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다.

3. 결론 : 개혁주의적 교부학의 가능성

최근 ‘교부학’에 있어서 가톨릭의 양적, 질적 성장은 ‘교부학’의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가톨릭의 교재를 사용하면서, 특히 교부의 권위나 세세한 전통이나 교리에 있어 무의식적으로 가톨릭적 해석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 기본을 ‘교부학’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개혁주의적 교부학의 조건도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칼빈은 종교개혁의 교리가 초대교회의 올바른 정신을 회복한다는 확신에서 교부들을 연구하고 사용했다. “사실상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대의를 지지하는 수호자로 취할 수 있습니다.”⁵⁷⁾ 사실 ‘교부학’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도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⁵⁸⁾ ‘교부학’이라는 용어 자

57. CO 9, 879.

58. 배승록, 22쪽.

제가 루터교 신학자인 요한네스 게르하르트(Johannes Gerhard, 1582-1637)의 *loci theologici*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9권짜리 교재는 오랫동안 루터교 조직신학의 교본으로 활용되었다.⁵⁹⁾ 게르하르트 같은 신학자가 ‘교부학’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부들도 사실은 개신교 편임을 천명하고자 함이었다.⁶⁰⁾ 따라서 가톨릭의 것을 연구한다는 의구심이나 혹시나 교부에 대한 연구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교부학은 초대교회사와의 관련성에서 또한 개혁교회의 정체성 면에서 아주 중요한 학문이다. 교부학의 발전은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의 진전으로 연결될 것이며, 세계 신학계에서 한국 신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다.

‘교부학’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M. Div. 과정에서는 힘들더라도, Th. M. 과정 이상에는 ‘교부학’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M. Div. 과정에서도 역사신학 및 조직신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라틴어 강좌를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한국 개혁주의 교회들의 교부 연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종교개혁의 선배들을 사용하셨듯이, 2천년의 교회 역사, 그중에서도 가장 신앙에 순수하고, 말씀에 충실하며, 실천에 적극적이었던 초대교회의 경험과 유산은 분명 우리의 교회생활을 더욱 풍성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9. 조병하, 14쪽.

60. 김광채, 28쪽.